

강진에 도내 첫 친환경 체험목장 만든다

도농기원, 5만여㎡ 부지 21억 투입 내년 4월 완공

동물들과 교감, 어린이 인성·감성 함양에 큰 도움

아이들이 동물을 직접 만지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체험목장이 강진에 조성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산하 전남도축산연구소는 23일 “연구소 내 부지 5만여㎡에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내년 4월까지 체험 목장을 짓기로 했

다”고 밝혔다. 체험목장 조성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이다.

축산농가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인성과 감성 함양의 열린 공간이라는

것이 축산연구소의 설명이다. 체험 목장에는 한우를 비롯해 도내에서 보기 어려운 칠소, 당나귀, 쫓달소, 미니돼지, 꽃사슴 등 초식동물과 희귀종인 금계, 은계, 기니아피그 등도 선보인다.

목장 내에는 방목형 동물놀이터, 수변 동·식물 관찰 학습공간, 동물관리사 등이 들어서고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은 동물 먹이주기 등의 체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정크아트, 생활유물 전시관, 토피어리, 건조단을 활용한 예술작품 등을 전시해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한다는 것이 축산연구소의 복안이다.

축산연구소는 체험목장이 가깝다 위 관람객에게 체험과 휴식공간 제공, 친환경 축산업을 활용한 관광지원화, 새로운 소득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대도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기존 동물원 등과의 차별성 확보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원호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장은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의 모델로 정립해 체험객에게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인성, 감성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장성군 11개 읍·면 내년부터

음식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장성군이 내년부터 11개 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23일 “일부 지역 시범운영 등을 거쳐 종량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진 만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운영한 후 7월부터는 장성을 영천리의 대창·충무·매화·정운동의 단독주택 및 음식점과 11개 읍·면의 공동주택까지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단독주택, 음식점 등이 기존에 음식물 전용 봉투로 배출하는 방식과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각 세대당 600원씩 부과하는 방식 등 기존 방식이 모두 음식물 수거용기 규격에 따라 납부필증(집)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

독주택 5ℓ 용 8000개와 음식점 20ℓ 용 500개의 전용용기를 구입, 읍·면 사무소 및 마을회관을 통해 최초 1회에 한해 각 세대 및 공동주택에 무료로 공급했다.

또 홍보물 6000부를 제작·배부하고, 음식업 영업자 등 주민대상 맞춤형 교육, 이·동장 회의 등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및 감량의 중요성을 알렸다.

군은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읍·면 소재지에 전면 시행되면 연 20%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은 종량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수거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기도 했다. 납부필증(집) 가격은 5ℓ 가 70원, 20ℓ 280원, 120ℓ 1680원 등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유용 미생물 활성액 이렇게 만드세요

대한주부클럽 화순군지부(회장 최순임)는 지난 21일 화순지역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EM 유용 미생물 활용법 및 EM 유용 활성액을 만드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화순군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이들 이주여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갔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국립나주박물관 개관 한달만에 관람객 수 1만3000명 육박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중환)이 개관 1개월만에 관람객 수가 1만3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관한 나주박물관은 23일 현재 1만2727명이 찾았다. 1만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지난 18일 오후 1시 50분께 나주시 지역 교장단 연수를 위해 박물관에 입장한 신진숙(광주시 남구)씨였다.

박물관은 신씨에게 향후 5년간 박물관 발간 책자 무료 제공과 문화상품권, 꽃다발을 증정했다. 나주박물관은 유적 현지에 세워진 국내 최초의 국립박물관으로, 이 때문에 도심으로 멀리 떨어진 전원 속에 위치한 관람객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나주박물관은 개방형 수장고와 다양한 영상, 체험전시, 스마트폰 전시안내시스템 등의 첨단 전시기법을 마련해 찾아오는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 냈다. 또 개관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1만명을 돌파함으로써 영산강 유역의 새로운 문화중심지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1년 중 관람객의 이동이 가장 적은 비수기(11월~12월)에 관람객 1만명을 유치함으로써 나주박물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송영철기자 ycsn@

담양 삼정회관

우수식당 선정

한국방문위·10개 지자체 주관

담양군은 23일 “(재)한국방문위원회에서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한 우수식당 선별에서 담양읍 소재 삼정회관(대표 김대성)(사진)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한국관광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만족도 제고를 위해 (재)한국방문위원회가 실시했다.

조사는 내·외국인 모니터링 요원을 식당서비스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식당에 손님으로 가도록 해서 서비스·위생·시설·메뉴 등 4개 부문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지자체별로 5개 식당을 선정해 모두 50개



우수식당을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우수식당으로 선정된 삼정회관은 지역 곳곳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한 곳”이라며 “지역 식당들이 깨끗한 위생환경과 친절 서비스로 선진 음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단신

남원 송동 세전 배수펌프장 현대화 사업 완공 눈앞

남원시는 23일 “삼전강과 요천의 합류 지점인 송동 세전리에 위치한 세전 배수펌프장 현대화 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세전지역은 집중 강우 시 요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 빈번히 침수되는 상습침수 구역으로, 시는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대화사업을 진행중이

다. 시는 집중호우에 의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시 관리 주요 저수지에 자동 수위계를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역 배수문에 대하여 CCTV를 설치해, 집중호우 및 이상기후에 대한 신속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북도, 자동차·농기계 등 19개업체와 이전·투자 협약

전북도는 23일 “지난 20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린노알미늄, 영동테크, 하나산업, 대호 등 자동차와 특장차·뿌리·농기계기업 19개 업체와 기업 이전 및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내년부터 군산 국가산단과 김제 지평신산단 등에 연차적으

로 입주한다. 이들 기업이 부지매입과 공장 설립 등에 투자할 규모는 412억원으로, 모두 193명을 채용해 연간 5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지방물가안정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2013년 지방물가안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창군은 올해 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하는 등 3년간 총 시상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

군은 지난 3년간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수돗물 생산비용을 절감했고, 상수도 미 보급 독립가옥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했다.

고창=음형영기자 cy0370@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 시행’ 올해 최고의 뉴스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23일 “올해 도내 교육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 시행’을 최고의 뉴스로 꼽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12일 학생정보보호,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보장, 야간학습 및 불종수업 강요 금지, 인권교육 강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

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100개 돌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제한적 수용’, 도내 전입학생의 전출 학생 초과, 수능언어·외국어 성적 향상도 주요 뉴스로 뽑았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조성 순조

정읍시, 터널길·쉼터 등 연내 마무리

정읍시는 23일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조성사업(이하 단풍생태공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내장산국립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경관이 뛰어난 내장저수지 위쪽 6만㎡에 단풍을 테마로 한 단풍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정읍시와 국립공원내장산관리사무소(이하 국립공원) 두 기관이 협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총사업비 63억원 가운데 시가 38억원, 국립공원사무소에서 25억원을 투자한다.

시는 단풍을 테마로 한 수목식재

및 조경사업을 맡고, 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 체험·전시관 등 주요 시설물을 맡는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테마별 단풍원(8개소)과 세계단풍원, 단풍터널길(190m), 단풍동화숲, 단풍분재원, 단풍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마쳤다.

국립공원사무소에서도 단풍 체험·전시관과 잔디주차장, 운동시설(족구, 농구) 등의 사업을 마치고 자생식물 9만5500본도 식재했다. 현재 총공정율은 70%다.

시는 내년에는 단풍바람숲과 단풍잔디광장, 오색단풍원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전북

남원 운봉 공안마을 4년간 50억 투입

블루문화센터·힐링공자왈 쉼터 등 조성...농촌 일자리 창출 기대

농림부 ‘2014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정비사업’ 선정

남원시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사업에 ‘운봉 공안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안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지리산 기슭에 위치한 세갈산, 학생교육원, 허브시험장, 힐링공자왈 쉼터 등 주민복지시설을 조성한다. 또 친환경 가공공장 등을 조성해 주민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허브시험장, 백두대간 운봉향교, 공안서당, 고사리 재배지 등 관광자원과 주변경관을 테마로 ‘구름, 산, 물이 사연을 만드는 오래된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2018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0억원이 투입된다.

공안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통해 시는 운봉읍 공안·산덕·행정리 등 3개 리에 ‘블루문화센터(문화체험교육장, 예절교육장, 건강관리실)’, ‘힐링공자왈 쉼터’ 등 주민복지시설을 조성한다. 또 친환경 가공공장 등을 조성해 주민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고, 허브시험장, 백두대간 생태교육 전시관, 학생교육원을 연계한 공안 테마길 조성 등을 통해 관광객 편의시설도 갖출 방침이다.

우선 2014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4억9000만원을 들여 정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지역리더 양

성과 주민교육훈련, 홍보마케팅 컨설팅, 기본계획수립, 토지매입 등에 나선 예정이다.

시는 ‘공안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본격 착수로, 인근 지역에서 계획 중인 백두대간 생태체험장, 지리산허브밸리 식물원 및 정령치 등의 연계를 통해 체험 관광 루트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안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지역 주민의 삶터, 일터, 쉼터에 활력을 줌과 동시에 농촌마을의 일자리창출과 관광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전주 중소상인들이 ‘동네빵집 살리기’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맞서

크리스마스 케이크 판촉 활동

전주지역 중소상인들이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동네빵집 살리기에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3일 “지난 20일부터 전주지역 중소상인들이 ‘지역 경제 살리기 캠페인 1탄-어때요? 올겨울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정겨운 동네빵집에서’ 홍보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에 참여한 200여 곳 상점에서는 이날부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대신 동네빵집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창엽 전북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은 “대형 제과점들은 물량과 좋은 위치를 이용해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토종 빵집을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경제 문제를 넘어서 소비자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알권리와 선택권과도 관계된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한우유전자뱅크 ‘번식우’ 첫 분양

장성군이 23일 한우유전자뱅크에서 독자적으로 8년여 동안 연구·개발한 고성력 번식우를 일반 농가에 첫 분양했다. 이날 분양을 받은 축산농가들이 한 식구가 될 소와 첫 대면을 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행뉴스